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호 [루게 제25166호] 주제105(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의 의도와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된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최룡해 동지, 안경수 동지, 조용원 동지, 김여정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공장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난해 1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당에서 적극 도와주셨으니 공장을 세계적수준의 현대적인 식료공장으로 전면시켜 우리 인민들과 체육인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들을 더 많이 안겨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개건형성안도 몸소 지도해주시고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고있는 속도전청년돌격대 공사를 맡겨주시였으며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직접 풀어주시는 크나큰 모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정으로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해당 부문과 공장, 속도전청년돌격대의 일꾼들, 종업원들,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림으로써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점생산공정 등 새로운 식료품생산공정들을 꾸린것을 비롯하여 신축 및 개건, 현대화공사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또한 방대한 현대화공사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식료품생산을 하루도 중단하지 않고 정상화하였으며 19종에 100여가지나 되는 새 제품들을 개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부지면적은 전혀 늘이지 않으면서도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방법으로 새로 개건한 공장의 전경을 바라보시며 지난 시기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속에 일떠선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발전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며 한번 나와보시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생각이 간절해진다고, 이렇게 현대적으로 개건된 공장에 장군님을 한번 모시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와 인기가 나날이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비결은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던대로 어느 한

순간도 생산을 멈추지 않고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투쟁한데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과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세상에서 제일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더 질 좋게 생산하는것으로써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현대화정형과 생산실래, 제품의 가지수와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해놓았으며 전반적인 생산공정의 자동화, 무인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함으로써 국가계획수행은 물론 주문생산도 원만히 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고 하시였다.

제품의 위생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와 생산현장을 유리건재로 완전히 격폐시키고 현대적인 분석설비들과 위생통과시설들, 공기정화설비 등을 그르히 갖추어놓았는데 무균화, 무진화수준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현대화가 최상의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하시면서 공장 현대화에서 특별히 마음에 드는것은 고도로 집약화된 생산공정들을 꾸려놓은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2 면으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현대적으로 개건된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체육인들의 영양관리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여러가지 식료품들과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 제품들을 대량생산하고있을뿐만아니라 새 제품개발사업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상품도안과 포장도 정말 잘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당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종업원들에 대한 원격교육과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할 수 있도록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마련해놓았으며 인제선발과 양성, 평가, 등록 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에 의거하여 인재관리사업을 실속있게 할수 있는 체계도 잘 갖추어놓았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이 현대화된 결과 우리의 식료품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도약시킬수 있는 또 하나의 발판, 기준이 마련되였다고 하시면서 중앙과 지방의 식료공장들과 편관부문의 일군들을 참관시키고 따라 배우게 하자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의 생산공정들마다에서 우리의 식료품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는것을 보니 정말 기본이 좋다고 하시면서 당의 의도에 맞게 공장을 현대적으로 훌륭히 개건한 해당 부문과 공장, 속도전선년들격대의 일군들, 종업원들, 틀격대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금컵체육인 종합식료공장을 만족하게 돌아보았다고 하시면서 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처럼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지니고 애국의 피와 땀을 바쳐가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의것을 만들어내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안고 인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한다면 인민생활항상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사업에서 성과의 비결은 일군들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정책관철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해당 부문과 공장일군들의 공로를 거듭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생산에서 계속 자랑찬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식료품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공장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 한 몇몇이공장으로 걸변시켜주시고 또다시 찾아오시며 모든 성과를 자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며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된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주체형의 혁명적당입니다.》 김정 일

당 대 회 의 나 날 들 을 더듬어

영광스러운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첫 당대회

정양시 중구역의 유서깊은 해방산 기슭에는 당창건사적관이 있다. 조선로동당의 빛나는 력사가 어려 있고 주체로 존엄높고 자주로 번영하는 우리 조국의 오늘이 다 비껴있으며 최후승리의 메달에 대한 확신으로 가슴 불타게 하는 당창건사적관. 주체조선의 무장투쟁의 국력을 과시한 첫 수호탄시험의 완결성공으로 새해의 진군길을 힘있게 내걸은 기세드높이 당 제 7차대회를 향하여 전 세 군대와 인민이 걸출쳐나아가는 이 시각 조선로동당의 력사가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첫 당대회가 더욱 비상한 의미로 부각되며 우리를 70여년전 해방조국의 첫 기슭으로 이끌어간다. 해방후 그처럼 짧은 기간에 당을 창건하여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끌어온 강위력한 정치적합모부들 마련하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백전백승하는 우리 당의 영광과 존엄에 대하여, 이 땅에 펼쳐지는 눈부신 기적과 성과들에 대하여 어찌 말할 수 있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사대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 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진정 얼마나 바라고바라던 우리 당의 창건이었던가. 지금도 그로부러낸 연단에 거연히 서서 당창건을 선포하시던 30대 우리 수령님의 영상이 어찌고 장대에 굽어지던 격정의 환희가 가슴속 안와 눈앞에 있어오랴. 주체 34(1945)년 10월 10일에 열린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 창립대회, 우리 당력사에 길이 빛날 첫 당대회는 《E. C》의 결성으로부터 시작된 당창건의 거대한 위업이 빛나게 실현된 력사적계기로 되었다. 령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어 그처럼 어려웠던 항일혁명의 나날 당창건의 든든한 조직사상적 기초와 빛나는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 혁명의 새로운 진로를 밝히며 결속된 난관을 헤쳐시던 그이께서는 사신의 천만고고도 넘으시었고 낮에 밝을 이어 탐구와 사색도 거듭하시였다. 《E. C》의 결성으로부터 카뎈의, 첫 당조직-건설동지들의 결성, 국내 당조직의 결성,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결성과 남호투위의, 조국광복회 창립... 우리 혁명의 뜻깊은 계기들마다에는 혁명적당창건의 빛나는 뿌리를 마련하신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새겨져있다.

복국해방후 안락의 정치정세는 복잡하였으며 우리 혁명의 앞길에는 연연히 많은 난관과 예외가 가로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피어난 항일전쟁에서 쌓이고쌓인 괴로도 푸실 사이없이 지체없이 당창립대회 준비사업에 착수하시였다. 복잡하게 얽힌 정세의 실마리를 풀기 위하여 사색을 집중하시다가도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어 나아가 길을 밝혀주시었고 각 도에 파견되어 활동하는 정치공작원들의 사업도 지도하시였다. 이렇게 며칠씩 밤을 지새우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일꾼들이 잠시나마 휴식할 기회를 말씀드리면 그이께서는 산에서 잠을 못이루고 계시는데 새 조국건설의 초석이나 든든히 다져놓고 휴식하자고 하시며 언제 한번 그들의 소박한 정을 들어주시지 못하시였다. 그때를 못 잊어 항일의 로투사는 이렇게 회상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의 건건 나날 건강이 넘쳐나 하루밤만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조국이 해방된 다음 꼭 쉬라고 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그런데 조국 땅에 개신하시여도 날마다 밤을 새우시니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른 얼마 만이라도 편히 쉬었으면 하는 우리의 소원은 언제 가면 이루어질것인가.》 해방후 그처럼 복잡한 정세속에서 조국적력으로 사업하시어 당창건준비를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진행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당창립대회를 앞둔 10월 5일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과 지방당조직대표들, 각지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혁명적당창건문제 등을 토의한 력사적인 회합이었다. 그러나 회의에 참가한 종파분자들 과 지방합주파자들은 처음부터 더러운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놓으며 회의의 파탄시키려고 책동하였다. 그자들은 이른바 《서울중앙》을 내걸고 당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꾀변을 늘어놓으면서 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을 한사코 반대하여나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에 상륙한 미제 가 군정을 실시하면서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혁명적인 진출을 무력으로 탄압하고있는 현형에서 조선혁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기 위하여서는 모든 조건이 유리한 북조선에 강력한 당중앙지도기반을 창설해야 한다는 것을 사리를 밝혀가며 해설하시였다.

당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을 반대할 구실이 되는 없게 되자 이자들은 이번에는 그 책임적인 자라들을 차지하기 위한 우악한 압력을 벌리었다. 이때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자리를 누가 차지하는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혁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며 이자들의 비렬한 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시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중앙지도기반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를 창설할데 대한 방침이 절대다수의 지지한동으로 채택되었다. 마침내 주체 34(1945)년 10월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를 소집하시였다. 잊을수 없는 10월 10일을 하루 앞둔 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강선제강소(당시)를 찾으신것이였다. 항일의 나날 우등불가에서 《사환가》의 노래속에 그려보시던 그리는 고함지건단 새 조국건설의 중하를 안으시고 만경대를 지나 강선의 로 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조선건설의 새한 불길을 지켜주시고 저변에는 평안남도당에 나가시어 자정이 넘도록 대외준비사업과 관련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날 밤 당 대표들이 든 숙소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꾼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당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대들이냐, 손님이고도 당대회에 대표로 온 손님보다 더 큰 손님이 어디 있었는가고 하시며 그들에게 모로로 더 가져다주어야겠다고 이르시였다. 그리고 자신께서는 숙소로 돌아오시어 당창립대회에서 하시 력사적인 보고를 집필하시였다. 기니마져 잊으시고 집필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는 한 일군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새날이 밝아온다고, 잠시나마 쉬셔야 하겠다고 말씀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의 승판이 되어 일했다고 하시며 새벽시간이 자신에게는 제일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 당창립대회보고의 마지막 필적을 끝내시었을 때에는 어느덧 아침해가 떠오르고있었다. 창가에 서시어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격정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파란무늬와 존엄한 시련을 겪던 우리 나라 혁명운동력사에 새 계지를 기록할 시간이 다가오고있소... 주체 34(1945)년 10월

10일 아침은 이렇게 밝아왔다.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하여 지방당 조직대표들이 참가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대회에서 력사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보고에서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 위원회를 내내에 대하여 밝혀주시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이룩하신 당조직건설경험과 《조국광복회》에 밝혀진 원칙들을 해방후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발전시킨 조직로선과 정치로선을 천명하시였다. 우리가 창건하는 공산당은 조선로 동계급의 참다운 진위대로 되어야 하며 조진혁명을 승리로 확고히 하도록 하는 위대한 정치적합모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조직적합모부를 꾸리고 당을 무산제급의 토대우에 든 든 선 대동정당으로, 유일한 지도 사상에 기초하여 조직되고 활동하며 사상의지 및 행동의 통일성을 실현하고 강령같은 혁명적규율을 세운 당으로 건설하는것을 우리 당조직로선으로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한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는것을 헌 단계에서 당의 기본정치과업으로 규정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전략적술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북조선공산 당 중앙조직위원회창립대회를 위한 강력한 민주주의적기조로 건설하는것을 당의 정치로선의 중요한 내용으로 규정하시였다. 우리 혁명의 전도를 환히 밝혀 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는 대표 들의 심장을 완전히 울려잡았다. 돌이켜보면 자기의 참다운 당을 가지 지 못했던탓으로 심각한 부진을 겪 어야 했던 우리 나라 혁명운동이었다. 대표들은 당의 조직로선과 정치로 선을 한결같이 지지하고 북조선공산 당 중앙조직위원회의 창설을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격정의 환희성을 더드리였다. 대회 첫날인 10월 10일 당중앙 지도기반으로서 북조선공산당 중앙 조직위원회가 결성되고 우리 당의 창 사상은 온 세상에 엄숙히 선포되었다. 조선로동당 제 1차대회로 기록된 당창립대회, 그것은 주체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하고 항일의 혁명전통을 계 승한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을 알

려 력사적인 대회합이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혁명적당창건을 위하여 벌 이오신 정력적인 투쟁의 결실이었다. 우리 당의 창건이 선포됨으로써 《E. C》의 결성으로부터 장구한 기 간 조직전개되어온 당창건의 력사적 위업은 마침내 빛나게 실현되었다. 진정 이 세상 가장 위대하고 존엄 높은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불후의 영도가 있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우리 당의 장장 70여년력사가 있음은 우리 어찌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잊을수 있 으랴. 조선로동당 제 1차대회와 더불어 창건된 온 세상에 선포한 우리 당은 어섯차례에 걸치는 당대회들을 통하 여 조직사상적으로 강화되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루었으며 인민의 절대 적인 지지를 받는 당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어 그 나날 온 세상에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그 이름도 빛나는 김정일성, 김정일동지의 당,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의 맹수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영도를 그대로 계승 해나가는 경에하는 헌수령님께서

게시어 더욱 즐기게 호르고있다. 회세의 정치가이신 경에하는 헌수령님의 혁명한 령도가 있어 위대한 김정일성, 김정일동지 당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경에하는 헌수령님께서서는 새해를 맞으며 하신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조선로 동당 제 7차대회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긍지높이 총화하고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 당겨나가기 위한 위대한 설계도를 결 처놓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인 분수령으로 될 당 제 7차대회를 승리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여야 한다고 절필히 호르하시였다. 오늘 우리앞에는 첫 수호탄시험에서의 완결성공으로 백두산대국의 무 진막강한 국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자 랑과 긍지를 안고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를 맞는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의 최진성기를 열어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에하는 김정일동지께서 계시어 혁명적당건설위업수행에 쌓아 올리신 어버이수령님의 업적은 후손들에게 빛날것이며 당 제 7차 대회는 승리자들의 대회로, 성스러운 조선혁명의 최진성기로 력사가 지랑스러운 한페이지를 수놓 을것이다. 본사기자 백영미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전하여주는 당창건사적관 본사기자 신충혁 찍음

장군은 우리의 빛, 위대한 래양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보고 그의 천출위인상과 고매한 인품에 매혹된 한 시인은 자기의 시에서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이라고 격조높이 구가 하였다. 열렬의 시인이 심장으로 러친 이 체침은 그 하나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의 감격과 환희의 분출이었다. 김일성빨찌산부대 정치위원

역사적인 우리 당창건의 나날 을 감동있게 형상한 조선애송화 《있을수 없는 나날에》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을 김일성빨찌산부대 정치위원이 라고 소개하시며 국내에서 활동하던 혁명가들을 만나시고 당창건준비사업에 정력적으로 이끄시는 감동적인 화폭들이 수록되어있다. 이 장편들은 결코 창작적허 구가 아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다. 해방후 만민의 열화같은 환영 도 마다하시고 조용히 조국에 개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안남도당의 일꾼들을 만나시 었다. 김일성 빨찌산부대 정치위원이라고 하시며 그들과

문제보다 더 긴급한 과업은 없 이 현하 조선혁명의 로선이며 통일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다그치야 한다. ... 당창건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평안남도당의 일꾼들 은 광명을 받아안은듯 새한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빨찌산부대 정치위원, 이것이 당창립 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우리 수령님의 직함이었다. 남조선대표들이 러친 경탄

나라가 갓 해방된 후 해방산기 슯에 자리잡고있는 2층의 벽돌집 으로는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 을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수많 은 사람들의 발걸이 끊김줄 물랐다. 그들중에는 38°선을 넘어온 남조선의 대표들도 있 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처음 만나 뵈는 순간에 벌써 그이의 인품 에 끌린 그들은 여러가지 문제

보적민주주의의 길, 바로 이것 이 현하 조선혁명의 로선이며 통일적당을 창건하기 위한 준비 사업을 다그치야 한다. ... 당창건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그이를 우러르는 평안남도당의 일꾼들 은 광명을 받아안은듯 새한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김일성 빨찌산부대 정치위원, 이것이 당창립 대회가 열리는 순간까지 우리 수령님의 직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창건을 준비하시던 나날 그이께서 계시는 숙소에서 최가성을 가진 사람이 일하고있었다. 어느날 그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지금까지 동무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머리물 속 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라의 주인이 되었으니 당당하게 처신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시 면서 동무는 남보고 《대장님》이 라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이제는 동무나 나나 다같이 나라의 주인이 만백성이 우리라든가 《최동무》라고 부르든지 내게 《최동무》라고 부르든지 내게 《김동무》라고 부르라고 하시였다. 그는 누구도 놀라와

은 이렇게 진심을 터놓았다. 《김일성빨찌산부대의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 뵈고보니 알것이지 락 더는것 을 느꼈다. 남조선에서 그 사상을 받아들여나갔습니다.》 《대장님》과 《동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도리머리 를 흔들었다. 난감해하던 그는 항일혁명투사들이 이 그를 《동지》라고 부르던 생각이 떠올 라 용기를 내어 《대장님》이라고 부르겠다고 말씀 올리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시 고 평안시민들과 감격적인 상봉을 하시였을 때에야 인정받은 《대장동지》가 그토록 울로 하여대지 않은 김일성장군님이 심을 알게 된 것은 감격의 눈물만 흘리였다. 파시 그들은 만백성이 우리라든가 《최동무》라고 부르든지 내게 《김동무》라고 부르라고 하시였다. 그는 누구도 놀라와

항일혁전의 신들메를 푸실 사이도 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어 그토록 복잡다단한 속에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날라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천출위인상은 오늘도 만사람을 무한히 감동시키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강선 사업을 혁명하게 령도하시어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조국에 개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창건 하기 위한 사업에 전진전력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산시 당을 찾으신고 민주주의기발 아예 단강선에는 구호를 들고나 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각계 층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밤길도둑 새 조선건

신들메를 푸실 사이도 없이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어 그토록 복잡다단한 속에서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날라게 실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과 천출위인상은 오늘도 만사람을 무한히 감동시키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강선 사업을 혁명하게 령도하시어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조국에 개신하신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당을 창건 하기 위한 사업에 전진전력하시 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원산시 당을 찾으신고 민주주의기발 아예 단강선에는 구호를 들고나 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각계 층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밤길도둑 새 조선건

자신께서도 마음이 가볍지 못했 다고 하신 회고록의 글말이 오늘 도 만사람의 심금을 울린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매일같이 각지에 파견된 정치공작원 들로부터 사업보고를 받으시고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때로는 어느 한 도당의 책임일꾼을 만나시어 도당이 해야 할 사업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남조선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친히 만나시 어 조선혁명을 중심에 놓고 단결 을 지향하며 당면과제는 여러 과 들이 각기 조직한 당들을 시급히 정리하고 조직적으로 결속된 하 나의 통일적당을 만들어야 한다 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마침내 우리 당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그것은 항일혁전의 신들메도 푸실 사이없이 전진전력을 다하 르고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루의 휴식도 주지 않고 파견지로 떠나 가라고 재촉하시니 사실은 본사기자 김인선



혁명적당창건의 길에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로고와 헌신의 자욱을 가슴깊이 새기고있다. -당창건사적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박봉주 총리

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료해

【평양 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 박봉주내각총리가 황해남도 동 김골사장과 해주트락도르부속공공장, 해주전농기계공공장 등을 돌아 보고 도안의 농사차비실태를 료해 하였다. 경에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 인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새해전 투에 전입한 황해남도물김골사장의 건설자들과 도안의 로동계급, 농업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 제 7차 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파로 맞 이할 총정의 일념안고 힘찬 투쟁 을 벌리고있다. 총리는 물김골사장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대중의 양양된 열의를 고조시켜 공사속도를 보다 높이며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 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총리는 해주트락도르부속공공장 과 해주전농기계공공장 신평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 이 군사리리통계급의 로동정신과 투쟁기풍으로 현대적인 농기계들 과 트락도르부속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줌으로써 사 회주의협동농마디에서 기계화의 동음이 높이 울리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들에서 는 도안의 전세 농업근로자들이 사회주의수호전의 제 1세대 제 1선 함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사차비에 힘을 넣으며 관련단위들에서 영농물자들을 원 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이 강구되었다.



본사기자 찍음

축산업발전의 4대고리를 틀어쥐고 축산물생산에서 비약을 일으키자

《애국풀》 종자모음겨심기를 기술적요구대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애국풀》을 해결하는 것은 축산업발전의 결정적요구입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올해신년사와 우리의 첫 수소산시험 완전성공소식에 접하고 당 제7차대회를 향한 총공격의 열기 속에서 축산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열의는 하늘을 찌를듯 높다.

오늘의 환희와 기쁨을 자랑찬 축산물생산실적으로 이어지게 하려면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명명하신 《애국풀》을 하루빨리 널리 퍼져야 한다.

풀들이 확보해 놓은 《애국풀》 종자모음을 옮겨심는데서 당면하게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요구 사항은 무엇인가.

우선 겨울철기간 종자로 보관했던 뿌리와 줄기마디들의 준비와 온실에서의 모판만들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겨울나이한 뿌리는 흙을 덮어낸 다음 다음에 주면서 줄기를 매단다. 이때 배수가 있는것들은 실뿌리가 붙어있도록 새로 갈라내어 옮겨심을 수 있게 한다. 줄기마디는 마디사이경계를 중심으로 가운데를 토막내어 심는것이 좋다.

모판은 평당 20~25kg의 부식토와 100g의 류안, 500g의 과석, 200g 정도의 염화칼륨을 골고루 뿌리고 같이 잘 혼합한 다음 20~30cm의 간격을 보장하면서 5cm 정도의 크기로 만든다.

다음으로 종자모음겨심기와 심은 후의 관리를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종자모음겨심기후 뿌리와 줄기마디를 반드시 2월 초에는 온실안의 모판안에 옮겨 심어야 한다. 3월까지 보관하면

온습도가 높아져 썩기때문이다. 이때 4cm 정도의 간격으로 종자모음을 옮겨심고 물주기를 잘하여 필요한 토양습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특히 옮겨심은 후 얼음피해를 받지 않도록 온보장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항상 0°C 이상의 온실온도를 보장하며 평하 2°C 이하로 내려갈 때에는 활상대를 리용하여 2중으로 박막을 씌워주어야 한다. 모판마다 적어 10% 정도 물이나 물을 1.5kg씩의 질소비료를

골고루 준다. 이렇게 온실에서 지내온 모판적기에 포전에 옮겨심지 않으면 생육에 지장을 주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때문에 하루평균 기온이 10~12°C일 때 포전에 옮겨심되 새로 생긴 줄기마디들은 개개로 갈라심어야 한다.

해당 단위들에서는 《애국풀》 종자모음을 과학기술적으로 구태로 심어 풀과 고기를 바꿀 때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애국풀》을 널리 퍼지기 위한 연구사업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 조직배양연구실에서—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먼저 갖추어 놓은 종축생산체계

화 품 탄 광 축 산 기 지 에서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의 축산정책관철을 위해 애쓰는 탄광당조직의 비전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방조는 종축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어미돼지들의 좋은 품종특성을 가진 종자를 얻어내기 위한 선별실험을 하였다. 결과 사양관리에 편리하면서도 새끼생산량이나 먹이에 대한 요구성, 생활력, 증체율 등에서 나무랄데 없는 우량한 종자돼지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단위의 축산물생산과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것을 계기로 탄광의 축산기지일꾼들과 종축원들은 농사와 마찬가지로 축산에서도 종자가 길어지면 좋은 품종의 집짐승을 길러야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 수 있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발맞추고 있다.

그후 탄광의 축산기지들에서는 좋은 품종의 집짐승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만큼 축산물생산량이 늘어났고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은 훨씬 개선되었다.

뜻깊은 올해에도 이 사업이

고 집행방안으로 있었다. 이것은 당에서 가르쳐준대로 종자모음을 선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축산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었다. 그 후 이 단위에서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자체의 특색을 살려 종축생산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는 할 수 있는가를 따지기에 무조건 해야 한다는 각오와 책임감이 이 단위의 종축원들을 분발시켰다.

지난 시기의 축산정형을 분석하면서 지혜를 합쳐가며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생겼다. 무엇보다 3월의봄철에 의한 종축생산체계를 현실성있게 세우는것이 가장 적절한 방도였다. 그러자 탄광 새끼생산성이 높은 품종, 생활력이 강한 품종, 비육속도가 빠른 품종의 종자어미들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당장은 이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었다.

탄광의 당정책일꾼이 이 사실을 알고 밤이 깊도록 뛰어나다 더 필요치 않은 어미돼지들을 해결해 주었다.

이런데 대한 열사복무정신을 지니고 당의 축산정책관철을 위해 애쓰는 탄광당조직의 비전적극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방조는 종축원들의 열의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 그들은 어미돼지들의 좋은 품종특성을 가진 종자를 얻어내기 위한 선별실험을 하였다. 결과 사양관리에 편리하면서도 새끼생산량이나 먹이에 대한 요구성, 생활력, 증체율 등에서 나무랄데 없는 우량한 종자돼지를 자체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단위의 축산물생산과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것을 계기로 탄광의 축산기지일꾼들과 종축원들은 농사와 마찬가지로 축산에서도 종자가 길어지면 좋은 품종의 집짐승을 길러야 먹이를 적게 들이면서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할 수 있다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적극 발맞추고 있다.

그후 탄광의 축산기지들에서는 좋은 품종의 집짐승을 자체로 생산보장하여 기르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그만큼 축산물생산량이 늘어났고 탄부들에 대한 후방사업은 훨씬 개선되었다.

뜻깊은 올해에도 이 사업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어 이미 건설한 축산기지들이 온을 낼 수 있게 되었다.

탄광정책일꾼인 리인태 동무의 말에 의하면 과학적인 종축생산체계를 세워놓은 결과는 참으로 좋다고 한다.

우선 집짐승의 도움으로 한 배에 낳는 새끼돼지마리수가 지난 시기보다 2배로 늘어났다. 또한 종전보다 20% 정도의 알목역을 절약하면서도 넉넉한 동안에 증체량을 100kg까지 늘렸다고 한다. 순리용면적이 80여㎡ 정도 되는 돼지우리안에서 년간 10여의 고기를 2명의 로력으로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니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과학적인 종축생산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전문축산단위에서만 행해지는 일이 아니었다. 그 이 단위에선도 과학축산을 하려면 집짐승종자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종자문제 해결을 축산발전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갖추어 놓은 과학적인 자체의 종축생산체계가 이렇게 온을 냈다.

본사기자 김진명

사양관리에서 중시한 종자돼지방목

이천군 신흥농장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자면 축산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전문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축산부문에서 혁신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제때 완수해 내는 것은 당의 뜻을 높이 받들면서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높고 볼 때 종자돼지방목을 과학적으로 진행하여 실적이 높고 있는 이천군 신흥농장 일꾼들의 일보세가 돋보인다.

흔히 집짐승방목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염소나 소방목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나 이 농장에서는 수심마리의 종자돼지를 방목하고 있다. 이것은 농장일꾼들이 집짐승사양관리에서 특별히 중시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다.

그뿐만 아니라 있다. 종자돼지를 기르는 목적은 새끼생산에 있다. 그런데 종자돼지의 지방질이 너무 두터워지면 새끼날이들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지방이 적게 축적되도록 일정한 정도의 운동을 시켜야 한다.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결코 집짐승우리안의 온습도나 먹이보장문제에만 귀착되지 않는다. 물론 성장단계별에 따른 먹이단위를 줄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도

비교적 빈번히 보장해주어 종자돼지들의 영양상태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에 만족하여 분별하지 않는다면 농장축산은 더욱 발전시킬 수 없다. 해당 집짐승의 생물학적특성과 생산목적에 따르는 보다 과학적인 사양관리대책을 따라세울 때 과학축산을 할 때 대한 당정책적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로부터 일꾼들은 방목문제를 종자돼지사양관리의 중요한 항목으로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강가에서 돼지방목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난 문제가 있었다.

처음 방목지에 나온 종자돼지들이 저미급 사방으로 돌아다니었다. 이렇게 되면 방목시간과 거리는 자연히 늘어나게 된다. 결국 지나친 운동효과로 하여 종자돼지의 영양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었다.

방목도 과학이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농장일꾼들은 축산작업반들이 방목과 관련한 과학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하도록 학습일정을 세우게 일으키게 하였다.

과학축산을 할 때 대한 당의 높은 뜻을 그들의 가슴속에 다스릴 길이 생겨주어 종자돼지방목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알기 쉽게 깨우쳐 주었다. 이와 함께 방목거리와 시간조절, 관리방법의 기술실무적지침을 높이기 위한 문제 등을 가지고 기술학습

을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돼지들이 방목과정에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체중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2시부터 4시까지 방목시간을 정해 주었다. 이러한 정돈된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효과적 인 운동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관리방법의 기술수준이 높아졌다는 물본이다. 그리고 방목 그자체가 돼지의 활동에 생활습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는 데 이바지되었다.

이런데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고원군 군내협동농장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습니다.》

지난 어느날 고원군 군내협동농장 관리위원회 제4차 작업반 비육분조가 닭을 때웠고, 닭이 닭을 물어뜯고 닭을 때우는 일이 일어났다. 닭이 닭을 물어뜯고 닭을 때우는 일이 일어났다. 닭이 닭을 물어뜯고 닭을 때우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데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중심고리로 틀어쥔 먹이문제

사리원돼지공장

세해전후 첫 20일 동안에 1월 축산물생산계획 110%로 넘겨 수행.

이것은 사리원돼지공장 일꾼들과 종축원들이 당에서 가르쳐준 축산발전의 4대고리의 하나인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좋은 집짐승 품종을 얻어내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발전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는다.》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은 알목역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 단위는 중심고리로 틀어쥔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세해전후 첫 20일 동안에 1월 축산물생산계획 110%로 넘겨 수행.

이것은 사리원돼지공장 일꾼들과 종축원들이 당에서 가르쳐준 축산발전의 4대고리의 하나인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좋은 집짐승 품종을 얻어내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발전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는다.》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은 알목역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 단위는 중심고리로 틀어쥔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세해전후 첫 20일 동안에 1월 축산물생산계획 110%로 넘겨 수행.

이것은 사리원돼지공장 일꾼들과 종축원들이 당에서 가르쳐준 축산발전의 4대고리의 하나인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좋은 집짐승 품종을 얻어내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발전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는다.》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은 알목역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 단위는 중심고리로 틀어쥔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세해전후 첫 20일 동안에 1월 축산물생산계획 110%로 넘겨 수행.

이것은 사리원돼지공장 일꾼들과 종축원들이 당에서 가르쳐준 축산발전의 4대고리의 하나인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이런 좋은 집짐승 품종을 얻어내도 먹이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축산발전의 선결조건이 되지 않는다.》

뜻깊은 올해에 일꾼들은 알목역을 절약하면서도 더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찾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여기서 이 단위는 중심고리로 틀어쥔 먹이문제를 중시한 중심고리로 틀어쥐고 내미는 과정에 이르른 성과이다.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산골논에서도 얼마든지 다수확을 낼 수 있다

회창군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자기 부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때때로, 모진주인, 요령주인을 철저하게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회창군 회창리 농장에서는 최근년간 해마다 알목을 증산해 온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난해에는 여러 번포전에 이 정도 10이상의 다수확을 내어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우리 당에 기쁨을 드린 것이다. 넓은 벌판을 부러워하며는 벼더심기를 꿈꾸던 여겨오던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지난 시기에 비해 2~2.5배나 높은 알목을 증산한 자랑을 안고 당과 첫 전부터 신심뜨고 내달리고 있는 바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경건은 무엇인가.

이 단위는 방목이 되면 서부터 종자돼지들의 영양관리에 필요한 여러가지 영양물질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었다. 또한 병정일성이 높아지고 먹이를 잘 먹게 되었다. 결국 소의 배가 훨씬 줄어들었다.

결과 방목하기 전에 비하여 알목역을 20% 정도 절약하면서도 새끼돼지생산은 1.2배로 늘었다.

축산물생산량을 높이고 경제적 실리를 보장할 수 있게 하는 집짐승방목을 얼마나 좋은가. 어느 단위에서나 방목문제를 축산발전의 중요한 요소로 여기고 하나의 방도로 찾아내고 사양관리의 과학화수준을 무던히 높여 나간다면 당의 축산정책관철에 적극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황철민

평화수호는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근본조건

지금 세계는 평등도 크지 않은 우리 공화국이 당당히 존엄을 해방국외에 몰라선대 대해 전권을 금지 못하고있다. 침략의 원흉 미제국주의와 맞서 조선반도를 영토로 전권을 모르는 공군인 평화지대로 만들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이룩하는것은 조성된 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셨다.

우리는 가중스러운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겨레의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민족의 천년대업을 확고히 담보하는 믿음직한 핵억제력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발자국이 아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무엇보다 바귀기 위한 총정물은 더욱 아니다. 미국의 전악무도한 핵위협공갈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정정당당한 나라의 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미복수심과 분노가 천백배로 치솟아 핵억제력강화로 이어지는것을 절대로 뒷날 후회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주고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자주통일이지가 맥박치는 애국의 호소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이 땅에서 존엄하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역력히 맥박치는 신년사는 해외의 각계각층 동포들에서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내외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깰 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전후적기치라고 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라는 그의 애국적호소나설을 호소하였다.

은 겨레를 부흥에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앞을 닦고서 그 기본내용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특히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전망과 판연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을 돌리면서 '북남대화 판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민족통일, 통일통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등의 제목을 달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는 성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겨레에게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끼리의 리념에 따라 민족자세의 힘으로 풀어나갈데 대한 투쟁강령을 제시하여준 역사적인 선언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감행되는 북침전쟁행위와 반통일책동을 반대하여 과감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기어이 조국통일의 리명을 안아올것이라고 선언하였다.

한 평화운동단체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조국통일구호를 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 조성된 정세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전후적기치라고 하면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높이 들고 자주통일과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시라는 그의 애국적호소나설을 호소하였다.

은 겨레를 부흥에국투쟁으로 불러일으키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가 발표되자마자 앞을 닦고서 그 기본내용에 대하여 대서특필하였다. 특히 언론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개선에 대한 전망과 판연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을 돌리면서 '북남대화 판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 '민족통일, 통일통일을 허심탄회하게 논의' 등의 제목을 달고 그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는 성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는 우리 겨레에게 북남관계와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인정이나 발자국이 아니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무엇보다 바귀기 위한 총정물은 더욱 아니다. 미국의 전악무도한 핵위협공갈로부터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해 나가는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정정당당한 나라의 행사로서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미국은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전쟁도발책동때문에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미복수심과 분노가 천백배로 치솟아 핵억제력강화로 이어지는것을 절대로 뒷날 후회하지 않는다.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위험을 몰아주고 긴장상태를 항시적으로 격화시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이들 통하여 갖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평화는 결코 바란다고 하여 이루어지지 않으며 구걸해서 얻어지는것은 더욱 아니다.

미국이 지난해 8월 북남고위급회담을 주도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 남조선에 핵전쟁위협을 부풀리고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려고 발광한것은 그 대표적사례이다.

반미적대시정책이 항거를 높인다

남조선집권자의 반적대시정책이 련속 파탄되는 속에 이번에는 《로사정대타협》이라는 보수세력의 정치적기만국이 실세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머칠건 남조선로총이 《로사정대타협》의 파기를 선언한것이다.

로총은 앞으로 《로사정위원회》에도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로사정위원회》는 법인의 《국회》처리장만이 사라지게 되었다.

로총산하 금융, 금속, 화학, 공공부분의 부문별로조들도 당시 합의의 실행을 위한 발판으로 삼고 있는 행위를 하고있다고 하면서 《로사정위원회》의 즉각적인 파기에 호응해나섰다.

그러면 《로사정위원회》의 본질과 그 내막을 보기로 하자.

《로사정위원회》이란 한마디로 달악이 로총조합과 기업체, 달악이 《로사정위원회》를 통해 만들었다는 합의이다.

결론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인적적합 모이던 사실상 그것은 반적대시정책이 기업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반민적로동정책을 《로사정위원회》라는 비단보자기로 의의 정당화하기 위한 하나의 연막에 불과하다.

남조선집권자는 《대통령》 강령을 뒤집어쓰자마자 로동자들의 《생활개선》이니, 《일

정치기만극 《로사정대타협》의 종말

자리마련》이니 하며 《로사정대타협》이니 하는 필요없고 요란히 광고하였다. 이 때 벌써 남조선집권자는 반적대시 《로사정대타협》의 간판밑에 추진하려는 교활한 속심을 드러내었다.

특히 근로인민들에게 국도의 생활난과 실업률증대에 대처하지않았다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로사정대타협》을 찬성하고 꾸며내려고 획책하였다.

지난해 《로사정위원회》의 대화결정이 선포되자 남조선집권자는 그 책임이 로총에게 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로사정대타협》을 찬성하고 꾸며내려고 획책하였다.

특히 근로인민들에게 국도의 생활난과 실업률증대에 대처하지않았다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로사정대타협》을 찬성하고 꾸며내려고 획책하였다.

특히 근로인민들에게 국도의 생활난과 실업률증대에 대처하지않았다는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로사정대타협》을 찬성하고 꾸며내려고 획책하였다.

이 땅의 현실은 민중을 총괄기어로 부른다

남조선인민내 트신문 《민중일보》가 5일 《약간 해진것과 새누리당이 있는 한 민주주의는 없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새누리당》이 올해 총선거와 관련하여 들고나오는 선거운동으로 로동자, 농민, 서민들의 목숨을 희생해야 할 전보정당을 버리는 바람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의 장에 직권장정을 강하게 압박하며 전보정당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판판법인의 날치기공작을 기도하고 여기에 로동계약인 동 약법인들도 로동시킴과 하고있다고 같은 규탄하였다.

같은 1996년 《로동법개정안》의 날치기공작과 그후 금

핵위협강화를 일삼아온 미국의 범죄적정체(3)

수십년간에 걸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핵에 의한 위협의 정점으로 일관되어왔다. 그중에서도 지난 세기 80년대와 90년대의 핵위협은 보다 황포하고 격렬하였다. 1970년대에 벌써 남조선에 하나의 거대한 핵무기저장고로 만들어놓은 미국은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의 대상》으로 선포하고 핵전쟁준비를 더욱 본격적으로 다그쳤다.

우리는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을 막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1981년에 동북아시아비핵화회담을 내놓고 1985년 12월 핵무기금지조약에 가입한것이 그 일환이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등 돌리며 《핵위협》을 계속하여 강화해나갔다.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서 미국이 빠르게 핵전쟁계획을 실현해 옮기기 시작하였다. 그 첫걸음이 120일전쟁제시나리오의 작성이었다.

미합중국본부는 1991년 4월 12일 미국에게 제출한 《군사행동에 관한 년례보고서》에서 《예르산지역에 이 지역이 일어날 위협성이 가장 큰 지역은 조선반도》라고 하면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어도 120일 이상의 치열한 전투가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은 20만명 이상의 《중원군을 투입하여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작성된 《120일전쟁제시나리오》는 미국이 그동안 남조선에서 세계적으로 다그쳐온 전쟁준비와 페르시아전쟁을 비롯한 침략전쟁행위를 종합적으로 전환해 나가는것을 기본으로 확립함으로써 조선반도의 핵전쟁은 시시각각으로 현실화되어갔다.

단 평 때 리 기

이 아닐수 없다. 개미귀 백 번 울어도 개소리뿐이라고 인민을 기간우롱하며 사기와 협박에 시달려가는 독재자, 시진배에게 출은 소리가 나올수 없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개와 언론들, 야당들이 《독신과 고집의 극치》, 《무능의 극치》, 《제 잘못 남에게

반민적대시정책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필어붙이는 고집적악습》 등으로 맹비난을 퍼부었던가. 가는 방향이 오는 후두대목 췌 주 제게 《대국민담화》요 뭐 하면서 부리를 잘못 들었다가 곤욕만 치르는 남조선집권자의 처지는 그야말로 가궁하기 그지없다. 그 어찌 남조선집권자는 청와대안방에서 꿈꾸거리며 한문도 바보처럼 하지 않았고, 《대국민담화》니 뭐니 하다가 여론은 취했다고 있고 싶은것은 큰 산이 어찌 그렇지 않았는가. 이런것을 두고 제논으로 제법을 때린 미련한 처사라고 한다.

관영국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승리

로씨야신문 《자브트라》 제2호가 우리의 첫 수소탄시험 완전성공과 관련하여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책임주필 알렉세이 드브로호노브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는 조선인민이 수소탄개발능력을 소유한것은 조선인민의 위대함을 말해준다. 조선인민은 자기들의 문명을 창조하였다. 조선은 문명한 나라이다. 조선에는 강력한 과학기술력 향이 존재하고있다. 핵보유는 유일하게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승리이다. 조선의 자주의 사상, 독립의 사상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

미국의 제재와 압력에 맞서나갈 힘장강조

이러한 취지하에 미국은 조선인민의 자주와 독립, 자유는 특이한것이 없다. 그들에게는 주체사상이 있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능력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발양시킨다. 주체사상으로부터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삶을 창조하고 국가와 인민을 위해 부른다. 조선인민은 그러한 집단속에서 값있는 재물을 창조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조선인민을 불멸의 인민으로, 창조로 불리는 인민으로 키웠다. 사람은 그러한 인민을 《약》으로 로사하고있다. 조수수속 조선에 대한 세계인